

표 51. 중국 길림성의 인삼연구 조직

연구소	인력 및 연구내용
길림인삼연구원	길림성 의약관리국 소속으로 총인력은 71명으로 연구직은 5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임무는 인삼생산기술연구 및 신약개발이다. 주요 연구 부서는 기술보급과, 인삼분석센터, 약리연구실, 약물연구실, 재배연구실, 병충해방제연구실, 인삼잡지발간실, 중앙제조공장, 보건약품공장 등 9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무송현 인삼연구소	연구 인력은 35명으로 주요 연구 분야는 육종, 재배, 토양, 병충해 등으로서 주요 연구목표는 다수성고품질, 내병성품종 육성, 토양관리 및 병해충방제 연구를 한다.
안도현 복만립 인삼창	연구 인력은 약 30명으로서 주요 연구 분야는 재배, 생산 및 가공 분야로서 주요연구목표는 고품질 다수확 재배기술 연구 및 가공기술 및 제품개발 연구를 한다.
길림농업대학	인삼분야 연구인력은 약 6명으로서 주요 연구 분야는 육종, 재배, 토양 및 병해충 등으로서 주요 연구 목표는 내재해, 내병성 품종육성, 토양 조사 및 병해충방제 연구를 한다.

(2) 인삼산업 정책

중국정부는 길림성을 중심으로 인삼육성정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길림성의 경우 '11년 4월 백두산전역을 '야생인삼밭'으로 조성해 대량 생산계획을 수립하고 인삼종자 2,000kg을 투하하고 향후 2년간 매년 2톤씩을 더 투하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길림성정부는 인삼산업 부가가치 창출액을 '12년 200억위안, '15년 400억위안, '20년 1,000억위안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를 위해 인삼을 원료로 하는 주사액과 캡슐 등 신약개발, 화장품, 차류 등 고부가가치 상품개발과 출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길림성정부는 '2010~2020년 인삼산업발전계획'과 '길림성 인삼산업 2011~2015년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인삼을 전략산업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동시에 길림성정부는 인삼의 소비확대를 위해 의약품으로 등록되어 있는 인삼을 한국과 같이 건강식품으로 제조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와 협의를 통해 제도를 개선하여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시에 인삼제품의 브랜드개발과 표준규격화도 진척되고 있다.

품종개량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최근 '집미'와 '무홍호' 품종을 개발하여 보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민간제약회사에서도 인삼 품종개발을 하고 있다. 현재 길림성내 인삼전문연구원이 약 200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한국의 고려삼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배기술과 품질이 낮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재배에서 가공유통단계의 일관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정부의 인삼산업관련 주요정책방향은 주산지역의 인삼전문 관리기구 설치, 무공해 인삼재배기술개발, 브랜드화 및 표준규격화, 시장경쟁력 제고, 재배면적 계획화, 인삼 가공공장 현대화 등이 대표적이다.